

찬미함으로 감람산으로 나아가자!!!

개강 예배에 이어 25개 합창단이 함께한 합창 마라톤

2018년도 획기적합창세미나는 개강예배 찬양을 위해 오전 9시 반부터 모여 연습한 100명의 찬양대로부터 시작되었다. 11시에 드러진 예배에서 찬양대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를 권영일 이사의 지휘로 찬양했고,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나아가시면서도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찬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하재송 목사의 설교가 있었다.

점심식사 후 폐막연주회를 위한 연습이 5개의 장소에서 있었으며,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합창 마라톤은 어린이 합창단, 여성합창단, 선교합창단 그리고 남성합창단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어린이합창단은 천사들의 노래와 같은 청아한 찬양을 선보였고, 여성합창단은 부드럽고도 풍부한 울림을 가지고 높은 표현력을 들려주었고, 섬세하면서도 영감있는 합창을 들려준 선교합창단은 합창 마라톤의 백미처럼 느껴졌다. 저녁 7시 반에 있었던 남성합창단의 강하고 웅장한 사운드는 남성합창의 위용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였다. 합창마라톤은 모두 25개 팀 1000여명이 참가하여 약 7시간에 걸쳐 보여준 각기 다른 색채의 울림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는 신자들의 진심 어린 고백으로 여겨졌다.



숨쉬는 사람마다 여호와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시 150:6)

